대한지리학회지 제35권 제1호 2000 (141~157)

재일동포의 집주지역 형성과 민족 정체성의 변화

- 요세바 고도부키를 중심으로 -

조 현 미*

The Formation of a Regional Segregated Area and Ethnic Identity of Korean Immigrants to Japan

- A Case Study of Yoseba, Kotobuki District -

Jo, Hyun-Mee*

요약 : 본 연구는 재일동포들의 집주지역 형성의 메카니즘을 해명하고, 나아가 민족의 정체성이 집주지역 내부에서 세대 및 시대별로 어떻게 나타나며 변화해 가는가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집주지역의 예로서 선정한 요세바란 '일용직 노동자가 노동시장과의 관련으로 일정한 지역에 모여, 취업·생활하고 있는 장소'이다. 요세바 가운데에서도 간이 숙박업소인 도야의 경영자가 한국인이 많은 곳으로 알려진 곳이 요코하마(横浜)의 고도부키(壽)이다. 경제적·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요세바에 한국인이 정착하게 된 것은 이곳이 식민지시대부터 열등민으로서 일반사회로부터 차별받고 멸시받아 온 그들에게 있어서 일자리와 숙소를 용이하게 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도부키 지역에 일자리를 찾아 새로운 한국인 New Comer가 들어오면서 재일동포와 New Comer 사이에서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일동포는 재일동포로서의 정체성을 재인식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주요어 : 재일동포, 집주지역, 민족 정체성, 요세바, 도야, 한국인 노동자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mechanism of the formation of a regional segregated area of Korean immigrants to Japan. And furthermore to examine the transformations of the ethnic identity with the change of the times and generations.

Kotobuki is Korean community formed in Yoseba. Yoseba is the space served as a catchment place of day laborers for jobs regarded as relatively unskilled. Such places generally have a large number of cheap lodging houses(doyagai) for them. With the change of the times, this area has become a place where the labor workers flocked into. Koreans also came in with them. Kotobuki was formed in Yoseba is a proof that socio-economic conditions influenced ethnic community. And the ethnic solodarity in the community got stronger in proportion to the solidarity tends to change and differs in degree according to the different generations of and different immigrant periods of the Koreans.

key words : Korean Immigrants, Regional Segregated Area, Ethnic Identity, Yoseba, Doya, New Comer

1. 서 론

1) 연구목적과 방법

현재 일본에는 약 69만 명의 재일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한반도의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일동포들은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그리고 그들은 이주 초기부터 직업 및 거주지를 선택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았고, 그리하여 특정지역에 모여 살게 되는 집주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재일동포들의 집주지역이 형성되는 메카니즘을 해명함과 동시에, 집주지역내의 사회적·경제적 실태를 밝히는데 있다. 다

* 관동대학교 지리교육학과 시간강사(Parter-time 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wandong University)

음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민족정체성의 변화에 관한 분석도 그 목적으로 한다.

집주지역으로서 필자는 가나가와현(神奈川縣) 내의 세 곳을 선정하여 조사하였으나,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요세바(寄せ場) 고도부키(壽)를 중심으로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요세바란 '일용직 노동자가 노동시장과의 관련으로 일정한 지역에 모여 취업·생활하고 있는 장소'이다. 요세바의 형성은 구성원의 직업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 다수의 일용직 노동자들과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을 꺼리는 일반적인 통념이 요세바의 경계선을 더욱 명확히 만든다. 일단 외부의 영향으로 경계가 만들어진 요세바라는 지역사회는 내부 구성원의 공통성이 외부와의 단절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 특수하게 고립된 공간으로서 나타난다. 고도부키는 요세바 가운데 재일동포가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자료와 함께 연구대상 지역에서 실시한 조사를 토대로 하였다. 현지에서 수많은 재일동포와의 면담이 있었고 본격적인 조사는 1992년부터 1997년 사이에 걸쳐 수시로 실시하였다. 평균적으로는 1년에 2회 이상, 1회에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조사시에는 한국인들이 이들 지역으로 들어와서 살게 된 경위 및 직업의 변천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과 함께 지역에 대한 애착과 민족집단 내의 집단성원 간의 관계 등, 민족의식 및 정체성에 관한 점까지도 해명하고자 했다.

2) 종래의 재일동포에 관한 연구와 과제

지금까지 재일동포에 관한 연구는, 역사적 변천과 사회·경제상황, 인권문제 및 권리의식에 관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朴慶植(1978)은 식민지 정책을 중심으로 官憲·기업 등의 비밀문서, 그 외의 미공개자료를 집성하여 그 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학계에 보고함으로써 재일동포와 식민지 정책 연구에 크게 공헌하였다. 또한 大沼·徐(1985), 小澤(1978) 등은 定住 外國人으로서의 재일동포에 관하여 한일관계사를 비롯하여 일상생활 속에서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차별에 대한 투쟁, 법적지위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가나가와현은 縣內 거주의 한국·조선인, 중국인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친 실태조사를 행하여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행정에도 도입하고 있다.

지리학 분야에 있어서 千葉(1987)과 成田(1995), 青(1995, 1998)에 의해 재일동포의 거주지가 특정지역에 편재되어 있음이 지적되었으나 이들 집주지역의 형성원인 및 배경, 지역의 특성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 집주지역의 민족집단 내부에서 나타나는 사회관계까지 파악한 연구는 없었다.

구체적인 일상생활이 영위되고 있는 '지역' 속에서 재일동포들은 일본인과 접촉하고 있으며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서로에 대한 의식도 변화해 간다. 재일동포를 둘러싼 변화는 단순히 전체사회의 동향과 국가의 정책, 제도의 변화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에서 그 공간적·물리적 특성과 관련지워지면서 顯在化되어 가는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생활공간으로서의 지역을 고찰하는 의의가 있다. 또한 지역은 그 구성원과 형성요인 등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특성이 주민의 생활환경과 지역에 관한 행정당국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요세바라고 하는 일본의 최하층 사회안에 형성된 한국인 집주지역의 형성과정과 지역내부에서 보이는 민족 정체성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세바 가운데에서 가장 한국인의 집주가 선명히 나타나는 요코하마의 고도부키를 예로 하여, 집주화를 촉진시킨 근본적인 요인을 구명하고, 나아가 민족집단 내부에서 보여지는 민족정체성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요세바의 개념 및 거주 노동자들의 특성

1) 요세바의 개념

요세바는 구미의 슬럼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노동시장이면서 노동자의 거주장소이기도 하고, 노동력의 析出과정에 있어

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자 및 노숙자가 요세바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역사적 배경을 가진 일본 고유의 존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세바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단순히 노동시장이라고만 표현한다면 그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여기에서는 일본어 표기 그대로 요세바라고 하도록 하겠다.

요세바에 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다. 예를 들면, 丹羽(1992, 545-546)는 '요세바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른 아침 혹은 저녁에 公道상에서 노동자의 모집이 직접적·집단적으로 행해지는 노동시장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때때로 일용직 노동자가 거주하는 간이 숙박업소 거리(도야街[1])가 포함된다'라고 하였다. 또한, 西澤(1990, 248)는 '상시고용이 아닌 비교적 미숙련으로 간주되는 노동력 공급을 위한 노동시장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공간과 그에 따라 규정되어지는 일련의 노동시장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양씨의 견해에 따르면, 요세바라고 하는 것은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시장이 항상 열리고 있는 장소이며,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숙박업소 등의 시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장소이다. 이 지역은 그 주요한 구성원인 일용직 노동자의 불안정한 직업조건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환경의 열악사 및 불안정사, 그리고 그 결과 사회계층상으로 볼 때 최하층에 놓이게 된다는 점 때문에 주위로부터 편견과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러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반응이 노동자들의 폭동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어 사회병리현상의 심층지대로 주목받기도 한다.

본 고에서는 요세바를 '일용직 노동자가 노동시장과의 관련으로 일정한 지역에 모여 취업·생활하고 있는 장소'라고 정의한다. 또한 구성원의 직업상의 특성과 생활패턴에 의해 외부로부터 격리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요세바에는 도야가 밀집되어 있으므로 '도야街'라고도 하는데, 본고에서도 일용직 노동자의 취업면에 중점을 둘 경우에는 '요세바',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중시하는 경우에는 '도야街'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현재 일본의 대표적인 요세바로는 도쿄의 산야(山谷), 오사카의 가마가사키(釜ケ崎), 요코하마의 고도부키(壽), 나고야의 사사시마(笹島) 등이 있다. 이러한 요세바를 기점으로 하여 취업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는 상당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나, 그들의 정확한 인원수를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요세바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의 통계 등을 참고로 하면 가마가사키에 약 3만명, 산야에 약 7~8천명, 고도부키에는 약 6천명의 일용직 노동자가 있다고 추측된다.[2]

요세바에로의 한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1920년대 초기부터 행해졌다(本間, 1993 49). 일제 식민지시대에 한국인 노동자는 주로 토목, 건축, 광부 등의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주로 최하층 노동, 혹은 단순·미숙련 노동 부문으로의 한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일본인 하층노동자와의 경쟁관계를 의미했다. 1900년대 초기에 행하여졌던 몇 가지 조사에 의하면 노동시장에서 일본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의 구직 경쟁이 극심하였다 한다(戸塚, 1974, 156).

도시빈민지구, 피차별부락, 요세바 등지로의 한국인의 유입은 한국인이 이러한 지역에서 취업하고 있던 지역주민의 생업에 진출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러한 직업에 있어서의 한국인의 증가는 일본인을 최하층의 직업으로부터의 탈출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戸塚, 1974, 156).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국인을 고려하지 않고 요세바를 언급할 수는 없게 되었다.

2) 요세바 노동자의 특성

요세바의 일용직 노동자는 토목·건축·항만관계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작업의 특성상 항상 위험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중층적인 하청구조의 말단부에 놓여 있으므로 임금체불과 하청업자의 갈취가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이 단신의 남자이며 작업현장을 따라 움직이는 이동성이 상당히 강하다. 그 때문에 거주면에 있어서의 불안정성이 일용직 노동자의 특성중 하나로 지적된다. 그들은 현장작업이 종료되

면 다른 현장으로 가던지 혹은 요세바로 돌아와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한동안 정착하는 요세바를 거점으로 하는 행위패턴을 보여 준다. 또한 주로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받기쉽고 경기변동에도 민감하다. 그 때문에 고정된 수입원이 없고 경제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생활의 불안정성이라 함은 경제구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고령화와 질병도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기의 특성이외에도 西澤(1995, 46)는 과거에 관한 은닉을 요세바 노동자의 특성으로 들고 있다. 요세바의 노동자가 홀홀단신으로 작업현장을 찾아 떠돌아 다니기까지는 타인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사정을 가진 자가 많으며 과거를 숨기기 위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명과 출신지 등을 철저하게 숨긴다. 요세바의 명칭을 사용한 동명이인이 많은 것도 그러한 연유에 기인한다.[1] 이와 같은 요세바의 특징으로 인하여 요세바 사회를 하나의 완결된 집단으로서 파악하기는 곤란하며 동시에 인구수와 같은 기본적인 통계조차 산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3. 요세바 고도부키의 형성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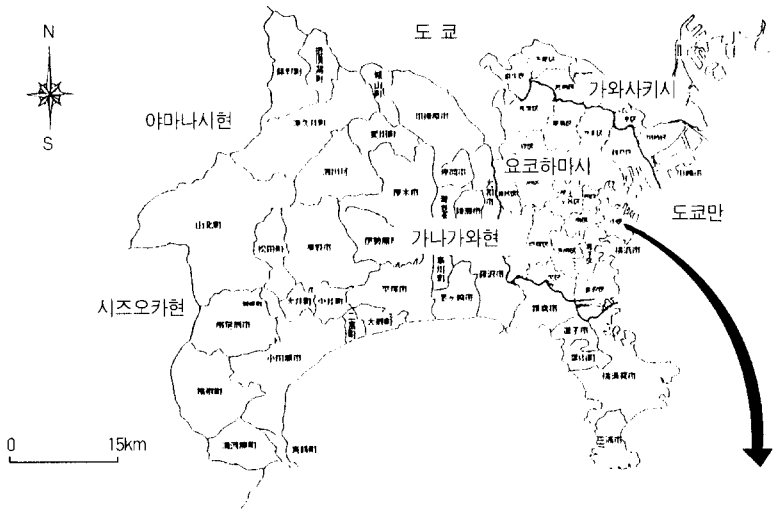
그림 1은 고도부키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 요코하마시 나카구에 위치하고 있는 고도부키는 JR線 이시가와쪼역을 중심으로, 일본에서는 가장 큰 차이나타운의 반대편에 있으며 가나가와현 청사 등의 관청가 및 오피스가와도 근접해 있고 요코하마 항구와도 인접해 있다. 초근대식 빌딩과 호화로운 상점가가 늘어서 있는 일각에 일용직 노동자와 노숙자가 여기 저기서 뒹굴고 있는 기이한 공간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1) 요세바의 형성 과정과 그 배경

고도부키에 현재와 같은 도야街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부터로 다른 지역의 것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역사가 짧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패전으로 인한 제대군인 및 해외로부터의 귀국자들로 인한 대량의 실업자가 창출된 위에 요코하마에 미군정 사령부가 설치되어 미국과의 물자수송에 필요한 항만 노동력의 수요가 커졌고 가와사키에 대규모 공장이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 등이 전국 각지로부터 노동력을 흡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른 직종에 비교하여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구직에 유리한 특정 직업소개소 부근에 집중된 주거형태를 띠게 된다. 해방 당시, 공공 직업소개소는 고도부키와 가까운 사꾸라기쪼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 일대의 숙박시설이 극단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생각해 낸 것이 소형선박을 개조한 수상호텔이었다. 이는 선창의 중앙에 통로를 만들고 양측으로 침대를 만들어 한 침대당 담요 2장 정도를 대여하여 1박에 10엔 씩 숙박료를 받았던 것으로, 처음에는 요코하마시 社會事業協會가 운영하였으나 곧 민간업자에 의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민영의 것들은 열악한 시설에 수용인원만 늘리려고 한 것들이 많았고 위생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므로, 외관적인 문제와 전염병의 발생 등으로 당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하게 된다(芹澤, 1967 5-10). 결국, 1951년에는 전복사건마저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문제는 사상자뿐만 아니라 수상호텔의 경영자 가운데에도 한국인이 많았다는 것이다. 1959년까지 사꾸라기쪼일대에 있었던 6척의 수상호텔 경영자를 조사한 결과, 6명 중 4명 즉 林鐘珠, 金蓉權, 金登子, 李泓의 한국식 이름으로 되어 있고, 다른 2명은 吉田와 森田이라는 일본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 전복사건을 일으켰던 선박의 경영자도 당시의 朝日新聞에 의하면 '제3국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수상호텔은 외관상, 위생상 그리고 화재의 위험 등의 문제로 주위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특히 민영의 것은 지나치게 낡은데다가 배설물은 그대로 강으로 흘려보내고 숙박자들의 세탁물이 배 위의 이곳 저곳에 널려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가나가와현은 하천법과 여관업법, 요코하마시는 항만법 위반에 의한 공유수면 불법점거로 보고 1959년 7월말을 기하여 철거권고를 한다. 그 결과 그해 9월 중순까지 대부분이 현장해체로 철거되었다. 그러나 항만 노동자의 수요는 변함없이 증가추세에 있었고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켜 줄 만한 육상 숙박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다.


N
S
도 쿄
야마나시현
가와사키시
요코하마시
도쿄만
가나가와현
시즈오카현
0
15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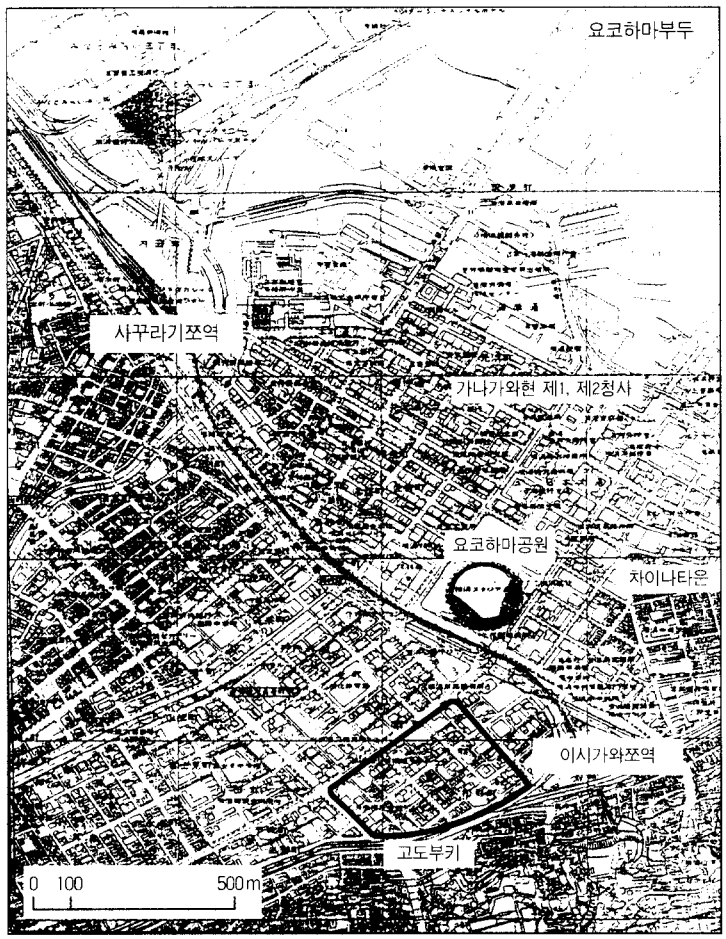

요코하마부두
사꾸라기쪼역
가나가와현 제1, 제2청사
요코하마공원
차이나타운
이시가와쪼역
고도부키
0 100 5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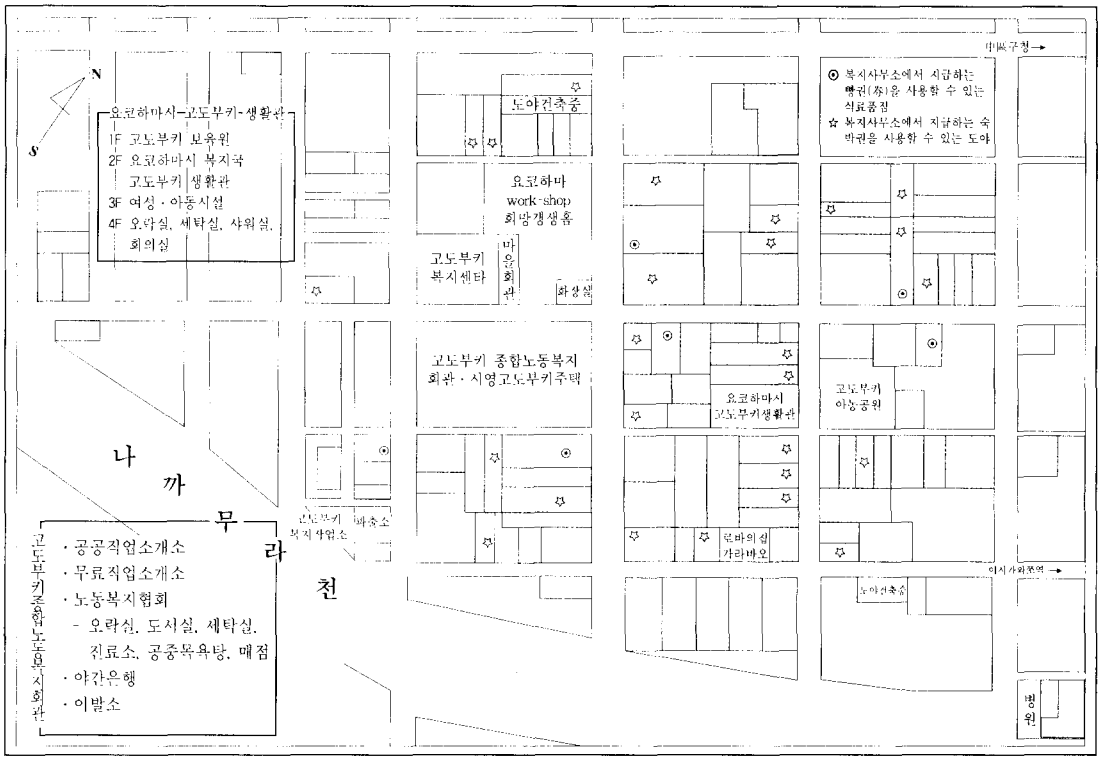
그림 1. 고도부키의 위치

공공 직업소개소는 1957년 매립지인 현재의 고도부키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데(壽生活館, 1995), 이에 따라 일용직 노동자들도 그 주위로 이동하게 되고 고도부키 일대에도 숙박업소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구체적으로 보면 1963년에는 81개소였던 것이 1967년에는 83개소로 늘어난 것이다(요코하마시 건설국). 이 가운데에는 수상호텔의 철거로 인한 호텔 경영자의 도야건축도 많았으리라고 추정된다. 또한 수상호텔뿐 아니라 당시의 도야경영자 중에도 한국인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는 현재의 도야경영자 중 99%가 한국인이라는 점에서도 입증된다.[1] 또한 이렇게 한국인 경영자가 많다는 사실은 이 지역으로의 한국인 유입자 자체가 많았다는 사실과 그들 한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가나가와 현내에서도 한국인 부락을 중심으로 일용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노점에서 불고기와 막걸리를 파는 곳이 있었으며 일이 끝나고 귀가하는 노동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기도 했었다(鄭, 1978, 2-13). 1967년 시점에서의 고도부키의 도야 경영자 83명 중에서 61명이 한국, 혹은 북한국적이었으며, 그 나머지 중 일본인이 13명, 불명이 9명이었다(芹澤, 1967, 25).

2) 고도부키 지역의 현 실태

고도부키 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건설되었던 도야들은 건축기준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것이 전체의 36% 밖에 되지 않았고, 정식수속을 밟았다 하더라도 준공검사 후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용인원을 증가시킨 곳이 많아 문제가 되었다. 이것은 수용인원의 과밀화뿐만 아니라, 통풍·채광의 악화, 화장실과 욕실의 부족, 숙박자의 건강악화와



* ▭는 도야를 의미함.

** 壽生活館(1996)에서 노동자를 위하여 작성한 도야街의 안내도를 필자가 수정 작성한 것으로 정확한 스케일을 파악하기가 곤란함.

그림 2. 고도부키의 도야街(1996년 11월 현재)

노동력 유지의 저하, 화제 등 재해시의 희생자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에 노출되고 있었다. 그림 2는 고도부키 생활관에서 작성한, 대부분의 고도부키내의 노동자들이 들고 다니는 도야街의 안내도를 간략히 한 것이다. 원래의 안내도에는 도야의 업소명과 1층의 상점명이 게제되어 있다. 약 6ha의 좁은 면적안에 92채의 도야가 들어서 있으므로 이러한 안내도가 없으면 이 거리에 웬만큼 익숙한 사람도 특정업소를 찾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 그리고 노숙자들을 위하여 복지사무소에서 지급하는 빵권과 숙박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소가 표시되어 있으나 빵권은 하루에 700엔 상당의 물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고, 숙박권은 대부분의 도야에서 여러 가지 구실을 대어 숙박을 거부하므로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고 있다.

도야요금은 매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며 1일 평균 1,737엔으로(壽生活館, 1995, 26), 이를 1개월로 환산하면 5만엔 이상이 된다. 이 금액으로 도야街 이외의 지역에서는 방 한칸에 부엌, 화장실이 딸린 집을 임대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야는 침대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에 공동으로 취사장과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열악함에 비교하여 얼마나 비싼 요금인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불안정한 근로조건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이 며칠이고 계속될 경우 숙박요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결국 그들은 도야에서 쫓겨나 노상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주변에 노숙자가 많은 것도 이 지역의 특징 중 하나이다.

4. 고도부키의 한국인

1) New Comer 한국인[5]의 유입과 생활환경

현재의 고도부키의 도야街는 도로에 면하여 있는 곳은 대개가 1층이 식당, 술집, 잡화점, 오락실(파칭코, 경마, 경륜 등)의 점포이고 2층 이상이 숙박업소의 형태를 하고 있다. 점포의 경영자도 도야와 마찬가지로 거의가 한국인이며, 식당 종업원은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온 중년여성들이 많다. 그리고 이 지역의 남성 노동자들 가운데에는 옛날부터 이 지역에서 일용직에 종사해온 사람들과 함께 최근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 들어온 New Comer 노동자들도 많다. New Comer의 경우에는 국적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으나, 예전부터 있던 노동자들의 경우는 국적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다.

고도부키에서 일을 하고있는 New Comer 노동자와 식당 종업원들 중에는 경영자인 재일동포가 친척이나 같은 고향출신을 불러들인 경우가 많다. 또는 이곳에 오면 일자리가 많다는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도 많으나, 이들의 대부분이 15일밖에 일본체류가 인정되지 않는 '관광'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2~3년, 길게는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고도부키 일대의 한국인 New Comer 의 증가는 한국에서도 주목을 받게 되어 몇 차례 텔레비전에 방송되기도 했다. 이들 방송은 주로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의 취업과 생활면에서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면, 'MBC News 2580'에서는 1996년 6월에 '고도부키의 한국인'을 방송했다.

이 방송에 의하면, '한국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하루에 13,000엔으로 3년 전까지는 1개월에 20일 이상 일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15일도 일을 할 수가 없고 임금도 낮아서 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다. 일을 할 수 없는 날은 주로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고, 결국 돈도 모으지 못하여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전체의 70~80%나 된다. 그 중에서는 상당히 돈을 모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혼자 살고 있으며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도 많다. 그래서 일자리도 없고 일할 능력도 없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다마(多摩)천의 하천유역에 있는 한국인 마을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방송에서는 실태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이 강조되었지만, 최근의 한국인 노동자의 일면을 아주 잘 보여 준 사례이다. 여기에서 다마천의 한국인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가와사키시에 있는 재일동포의 집주지역 중의 하나인 토대(土手) 지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토대지역은 재일동포의 집주지역이긴 하나, 노동능력이 없어진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시설이나 기관은 없다. 더욱이 토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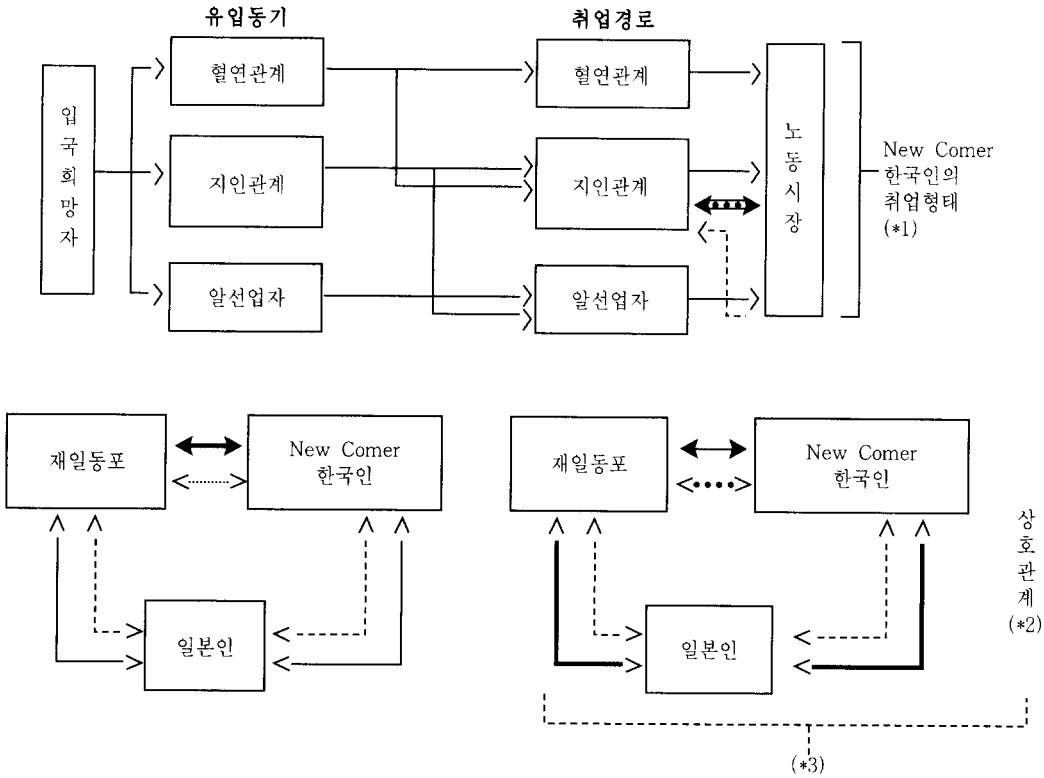


그림 3. New-Comer 한국인의 취업경로와 한국인 코뮤니티 안에서의 사회관계

주: (*1) ——>은 1차적 취업경로, ·····>는 2차적 취업경로, ▭▭▭▭>는 3차 이후의 취업경로를 나타낸다.
(*2) ——>은 우호적관계, ·····>는 배타적 관계를 나타낸다. 여기서 선의 강약은 서로가 느끼고 있는 의식의 강약을 나타낸다. 또한 코뮤니티내의 사회관계는 상호의존형 ⇒ 상호우호형 ⇒ 상호배타형으로 변화해 간다.
(*3) 단계에서 지인관계의 Net-Work가 강화되어 진다.

을 비롯한 재일동포의 집주지역 주민과 New Comer 한국인 혹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관계는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다.

방송이 있고 약 1개월 후, KBS에서도 역시 고도부키의 한국인에 관한 비슷한 내용의 방송이 있었다. 그 중에서 New Comer 한국인이 고도부키에 유입하게 된 동기를 조사한 내용에서 '한국인이 많다. 일자리가 있다. 방값이 싸다. 일본 경찰로부터의 안전지대' 등의 이유를 들고 있었다.

매스컴은 시청자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술적인 자료로 사용하기에 반드시 적합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분명히 고도부키에는 좁은 지역내에서 술집과 파칭코를 비롯하여 경마, 경륜 등의 도박의 기회가 많으므로 단신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한 시설의 존재는 다른 요세바도 같은 상황에 있으며 남성중심의 일용직 노동자의 거리에 있어서 위안 혹은 오락시설의 필요성에서 발생한 필연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이 동시에 노동자들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한국인 교회의 역할

민족 집단에 있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지주이기도 하며, 모국인끼리의 네트워크 형성의 기능을 한다. 각각의 민족 집단에게 있어서

그것이 불교나 이슬람교, 기독교 혹은 그 외의 종교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종교는 민족 네트워크를 형성·조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한국에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대부분이 가톨릭교 신자인 필리핀 여성들이 성당에서 미사 후 많은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종교를 매개로 한 연결은 국경을 넘어서 각각의 민족 집단의 상황에 맞추어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였고, 그 가운데에서 한국인 New Comer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이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한국계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도쿄에만도 여러 곳이 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단 한 곳밖에 없으며 그나마도 일본성당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불교관계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으나 그 숫자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도부키에도 1993년에 설립된 한국인 교회가 있다. 1996년 1월과 1997년 1월 2차례의 교회방문 및 주민과의 면담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이 한국인 교회의 포교대상으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 지역일대의 일본인 노동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 때문에 예배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2개 국어로 행해진다. New Comer인 이 교회의 목사에 의하면,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이 지역의 신자들은 육체적으로 힘든 만큼 정신적인 안정을 구하는 경향이 강하며 다른지역의 신자들과 비교할 때 신앙심이 두텁다고 한다. 그러나 이 교회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같은 New Comer 한국인과 지역내의 일본인 노동자들이며 몇 십년간 이 지역에서 생활해 온 재일동포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선교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고도부키의 한국인 New Comer 가운데에는 부부가 같이 와 있는 경우도 많으며, 이들은 대부분 자녀를 한국에 두고 온다. 그 때문에 현재 고도부키에 있는 자녀들은 일본에서 출생한 유아가 많고, 따라서 보육 및 교육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보육원(우리나라의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해당됨)에 넣기 위해서는 일본인 보증인이 필요하며 보증인이 있다하더라도 보육시간과 엄마의 취로시간과는 차이가 있다. 주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여성들은 보통 점심시간부터 일을 시작하여 밤늦게 끝나기 때문에 보육원에 아이를 맡길 수가 없었다.[7] 교회에 보육소를 설치한 것은 1995년 2월부터로 한국어와 일본어 양쪽 다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교회에서는 신자가 아니더라도 병자를 방문하여 병원을 알선해 주기도 하며 입원을 할 수 없는 환자는 교회에서 간병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노숙자를 위하여 도시락 배급 등도 하고 있다.

남성 중심의 고도부키에서 외국인은 더욱 고독한 존재가 되기 쉽지만, 한국인 교회가 설립되고부터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는 정신적인 지주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교회 관계자의 이야기로는 지역 속에 교회가 설립됨으로써 일본인 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고 한다.

5. 재일동포 커뮤니티 내부의 주민의식과 사회관계

재일동포는 그들만의 배타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 주민이 살고있는 지역내에 특정지역을 거주지로 살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비교적 재일동포의 비율이 높은 곳을 집주지역이라 한다.[8] 따라서 집주지역에서는 일본인과 한국인이 접촉하는 기회가 많으므로, 그 지역내부에서 발생하는 양민족간의 관계에 주목함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하나의 민족집단이 집주지역을 형성하게 되면, 그 지역으로 같은 출신국, 같은 민족의 유입자도 증가하게 된다. 새로운 유입자는 기존의 민족집단과는 다른 생활양식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고 같은 민족집단에 속해 있다하더라도 반드시 동질의 민족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본장에서는 민족집단 내부의 '민족 정체성'이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받으며 변화해 가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민족집단을 크게 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집단내부 및 집단간에 보여지는 상호작용이 민족정체성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3개의 집단이라 함

은 재일동포, 일본인 및 한국인 New Comer를 의미한다.

1) 일본인과 재일동포와의 관계

한반도가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50년 이상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에게 재일동포는 식민지 시대의 지배민족과 피지배 민족의 관계였다는 관념에서 아직까지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관념은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보다 집단 대 집단과의 관계에서 보다 명확히 나타난다.

일본인과 한국인이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중 앞에서 혹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재일동포를 자신의 친구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일본인이 지금도 많이 보인다. 한 재일동포 2세의 이야기에 의하면, "일본인 친구에게 초대받았지만, '일본이름으로 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본인의 태도에서 일본인과 한국인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인의 그러한 재일동포관은 New Comer 한국인관 과도 다르다. 예를 들면, 일본인에게 자신을 New Comer 한국인 혹은 非定住의 일시적인 체류자라고 소개했을 경우와 재일동포임을 표명했을 때의 일본인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난다.[9] 이러한 반응의 차이는 공동체의 내부에 이질적인 존재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겸악감의 표출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일본인이 볼 때 New Comer 한국인은 다른 외국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존재이지만, 재일동포는 식민지 시대부터 계속하여 상대적으로 민족적인 우월감을 느껴왔던 존재인 것이다. 그러한 우월감은 몇 십년동안이나 일본사회속에서 계승되어 온 것으로 편견과 불평등한 시선으로 한국인을 보아온 데에 연유한다.

일본인의 재일동포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행동은 시대와 세대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하나는 점차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짐에 따라 식민지 지배와 재일동포의 의미 등에 관한 의식마저 희박해져 가는 점이고, 또하나는 이러한 역사적 산물에 대한 강한 저항의식 때문에, 스스로 재일동포의 편에 서서 잔존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대항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재일동포는 취업의 사회적 기회 수급에 있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방송 등 대중매체에서 조차도 차별을 조장하기도 한다.[10] 또한 조선인학교(조총련계의 교육기관)는 일본의 교육법에 의거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의 입시 및 대부분의 공공 자격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가 없다.[11] 재일동포에 대한 제도적인 그리고 사회관습적인 차별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만, 그러한 차별에 대하여 일본기독교교단, 일본 변호사 연합회 그리고 각종의 시민단체에서 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할 시점이다.

재일동포 또한 일본 및 일본인에 대한 감정이 세대가 교체됨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던 1세대는 이미 거의 끝이 났다고 볼 수 있으며, 3세 이후의 세대는 같은 민족보다는 일본인과의 접촉이 더 많아졌다. 멀리 있는 조국보다는 가까운 일본에 대하여 더욱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세대에게 있어서의 민족 정체성이 한반도의 우리민족의 정체성과 동일한 것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재일동포 1세들은 식민지 지배하에서 심한 민족차별과 동화정책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민족차별의 벽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한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의지를 굳굳히 지켜나갔다. 1세의 민족의식은 조국의 동태와 직결되어 있었고, 개인적 차원에 있어서도 조국에 살고있는 친척의 생활이나 고향의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하느냐에 큰 관심을 가졌다. 1세들의 의식구조는 한마디로 금의환향이었다.

2·3세의 민족적 정체성은 1세처럼 본국에서 저절로 형성된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민족적 체험의 제1보는 부모로부터 배우는 우리말이나 풍습이라기 보다는 일본인에게 당하는 민족적 차별과 편견이었다. 그러한 편견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일본인 사회에 동화하여 일본인들이 자신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민족성을 주장하는 방향이다. 전자의 적극적인 행동은 귀화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후자

의 경우는 민족단체의 형성, 인권운동 등의 형태로서 나타난다. 하지만 3세 이후 세대 중에는 중학생이 될 때까지도 자신이 한국인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람도 드물지 않다.

2) 재일동포와 New Comer 한국인과의 관계

재일동포와 New Comer 한국인과의 사이에는 서로가 거리감, 혹은 배타감마저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집주지역에서는 언어적인 장애가 없다는 점, 일본인 보증인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이유로 New Comer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재일동포와 이들 New Comer와의 사이에는 의식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의식의 차이는 같은 생활공간 안에서 직업적으로도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New Comer 한국인이 고도부키에 들어오게 된 동기와 취업경로에 따라 재일동포와 New Comer 사이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을 그림 3에서 제시하였다. 우선 취업경로에 있어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동포가 주로 고향에 있는 친척을 초청하는 경우로 재일동포와 New Comer와의 사이는 혈연관계가 된다. 또한 친척은 아니지만 이 지역의 재일동포나 이미 이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New Comer 한국인과 아는 사이로 그들의 소개 또는 알선에 의하여 고도부키로 들어오게 된 지인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알선업자를 통하여 들어온 경우가 있다. 이러한 동기로 New Comer가 고도부키에 들어와 취업을 하기까지의 경로를 보면, 혈연관계에 해당하는 친척이 식당·건축업 등 어떠한 형태로던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최초의 직장이 그 친척이 경영하고 있는 곳이 된다. 혹은 친척에게 직장을 소개받는 경우도 있다. 처음부터 지인관계를 통하여 이 지역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역시 같은 지인관계를 통하거나 알선업자를 통하여 취업하게 된다. 하지만 New Comer의 경우, 한 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직장을 옮기는 사람이 많다. 그럴 때, 처음 취직한 곳이 혈연관계에 의한 것이던, 알선업자를 통한 것이던 관계없이 재취업을 할 때에는 대부분이 지인관계를 통하여 취업을 하고 있으며 이 단계에서 혈연관계는 약화되고 지인관계의 네트워크가 강화되게 된다. 그렇게 됨으로써, 양자의 친밀했던 혈연관계는 붕괴되어 간다. 즉, 재일동포와 New Comer 사이에는 점차 불신감이 싹트게 되고 체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러한 불신감은 더욱 깊어져 상호간에 배타적인 감정까지 느끼게 된다. 즉, 유입단계에서 처음 취업하는 단계까지 재일동포와 New Comer의 사이는 우호적인 감정이 강하며 배타적인 감정은 그다지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같은 동포라는 감정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것이 재취업 이후의 단계가 되면서 양자의 사이는 배타적인 감정이 보다 강화되는 반면,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우호적인 감정이 배신당한 느낌으로 바뀌게 된다.

역으로 같은 동포끼리보다는 일본인에게 오히려 우호감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단계에서 일본인에 대한 우호감이 강화되어 가는 것은 민족내부의 분열과 갈등에 의한 것도 있지만 점차로 일본인과도 개인적인 교재가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일본인 사회 전체에 대하여 느끼고 있었던 거리감이나 적대감이 약화되어 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재일동포는 오랜 이국에서의 생활 가운데 일본인과는 이질적인 존재로서 많은 갈등과 좌절을 겪었으므로, 같은 한국동포인 New Comer의 유입에 대하여 처음에는 깊은 우호감을 느낀다. 하지만 기회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조건이 좋은 곳으로 직장을 옮겨버리는 New Comer에게서 재일동포는 사고와 생활습관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상호간의 접촉을 통하여 재일동포는 자신들이 한반도의 한국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재일동포라는 별개의 민족집단으로서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해 가게된다. 즉, 생활환경의 차이가 가져온 의식의 변화를 서로가 느끼고 인정하며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식하는 단계, 말하자면 재일동포로서의 정체성를 재인식하는 단계이기도 한 것이다.

3) New Comer 한국인의 생활사로 본 집주지역 내의 사회관계

일용직 노동자의 마을인 고도부키에는 재일동포 이외에도 많은 New Comer 한국인이 노동자로

서 거주하고 있고 또한 그들을 대상으로한 도야 경영자의 대부분도 재일동포라고 하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마을은 일본인, 재일동포 그리고 New Comer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의 混住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고도부키의 현황을 더욱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New Comer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고도부키 지역과 재일동포 그리고 일본인의 모습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1995년 9월 1일부터 3일 동안 실시한 노동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그들의 생활사를 기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고도부키의 노동자를 포함한 주민들은 외부인과의 접촉을 꺼리므로 다수의 노동자들과 면담을 할 수는 없었으나 다음에 제시하는 다섯사람의 생활사는 많은 점을 시사해줄 것이라 본다.

New Comer 한국인의 인적 사항과 거주력에 관하여 보면(표 1), 조사당시 5명 중 3명이 40대, 1명이 50대 초반, 나머지 한명이 30대 후반으로 비교적 고연령층이었다. 그리고 도일시기는 D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5년 이상의 장기 체류자이다. 이들은 3개월의 관광비자로 도일하였으므로 조사시점에서 모두 불법 체류자들이다. 하지만 많은 불법체류자가 모여있는 고도부키에서 이들은 오히려 태연하게 구직활동을 하며 거주하고 있다. E씨는 "불법 체류자이지만 지금은 별로 긴장감이 없다. 경찰 당국도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묵인해 준다"고 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고도부키 지역의 일용직 노동자 조합의 간부인 일본인 K씨도 같은 의견을 보인다. "출입국 관리국은 불법 체류자라는 점만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검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수용 시설이 적으므로 치안유지라는 명목으로 경찰이 대신 그들을 관할 해 주기를 바라는데, 경찰도 지역 내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던가 하는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대규모로 조사를 한 적은 거의 없다"고 한다.

표 1. New Comer 한국인의 인적사항 및 거주력

씨명	A	B	C	D	E
성별	남	남	남	여	남
연령(세)	46	49	51	43	37
도일시기(년)	1990	1990	1990	1994	1989
도일가족	처(같이 도일, 처는 현재 식당 종업원)	없음	없음	남편(남편이 1개월 먼저 도일, 남편은 공사장 인부)	없음
도일동기	사업의 실패	?	전직 공무원, 감사에 걸려 해고당함.	남편의 사업실패	개인무역을 하고 싶어서
도일방법 및 목적	지인의 소개	알선업자를 통해(알선료 : 30만원)	1-2개월 정도의 방문목적	고도부키의 친척과 친구가 일자리가 있다해서	고도부키에 친척이 있고, 2-3년간 체제하기 위하여
첫 정착지	도치기현(재일동포가 경영하는 자동차시트 제작소에서 일함)	오사카	도쿄의 파칭코점	고도부키	고도부키
고도부키로의 유입동기	전 직장의 경영부진	고도부키에 친구가 있어서	철공소 등 여러 가지 직업을 거치는 가운데 고도부키에 대해 알게 됨	친척이 일자리가 있다해서	친척이 있어서
현직업	선박수리, 화물운반, 페인트칠	해체업 등 무엇이던지(현 경영자는 재일동포, 1주일에 6일정도 일함)	조선소(현 경영자는 일본인, 일거리가 없으면 다른 일을 소개해 주기도 함)	식당 종업원	건축, 선박관계. 직접 센터앞에서 구직활동을 하기도 하고, 지인을 통해 소개받기도 함.

자료: 1995년 실시한 면담조사.

New Comer 노동자들은 남자 혼자서 도일했거나 다른 가족은 한국에 두고 부부가 도일한 두 가지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일동기로는 한국에서의 사업의 실패(A씨, D씨) 및 회사에서의 해고(C씨) 등의 이유가 많으며, 개인무역을 하고 싶어서(E씨)라는 이유도 있다. 도일방법으로는 알선업자에게 알선료를 주고 직장을 소개받아서 도일한 경우(B씨), 아는 사람의 소개(A씨), 고도부키의 친척과 친구를 찾아온 경우(D씨) 등이 있다. 이들 중 처음부터 고도부키로 들어와 정착한 사람은 고도부키에 친척과 친구가 있는 D씨와 E씨 뿐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도치기현, 오사카, 도쿄에서 고도부키로 유입하게 된다. 이는 고도부키가 상당히 원거리까지 알려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의 고도부키에서의 직업을 보면 선박관계(A씨, C씨, E씨), 무엇이든지 닥치는대로(B씨), 공사장 인부(D씨의 남편) 등으로 나타나는데, 선박관계란 주로 화물의 하역 작업이다. 그리고 고도부키의 여성들은 주로 식당종업원으로 D씨와 A씨의 부인도 같은 경우이다.

New Comer 노동자들이 같은 동료끼리, 혹은 일본인이나 재일동포에 관하여 느끼는 점을 보면

표 2. New Comer 한국인이 보는 재일동포, 일본인, New Comer관

씨명	재일동포관	일본인관	New Comer관
A		철저히 윗사람에게 복종한다. 체계가 잘 잡혀있고 임무를 완수하는 점 등 본받을 점이 많다.	
B	지금 머물고 있는 도야는 재일동포가 운영하며 그 사람은 이해심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	경영자가 일본인인 편이 더 일하기 쉽다.	귀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건강문제, 가정사정, 일이 없고 방세가 밀려서 귀국한다.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 전체의 20% 정도만 송금한다. 30%는 송금하다말다한다. 50% 정도는 벌면 경마, 파칭코만 한다. 일이있어도 돈이 있으면 일을 안나간다.
C	6개월간 한국인 경영자 밑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같은 민족이면서 더 많은 괄세를 받았다. 일본사람보다 차별이 더 심하다. 일본사람도 말투에 가식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인이 더 하다.		
D	친척이 있어서 이곳에 왔지만 친척이 남보다 더 못하다. 전혀 이해심이 없다. 다른 사람들도 도야경영자인 자기친척이 2개월 방세가 밀렸다고 전혀 사정 봐주지 않아 쫓겨난 적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그런게 보통이다. 재일동포는 원체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친척에게 그렇게 각박한가 보다.	재일동포가 경영하는 숙박업소나 공장보다는 오히려 일본인이 경영하는 곳이 더 좋다.	한국사람들 중에는 밀린 방세를 갚지않고 도망가면서 방에 놓인 TV마저도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 도야경영자들은 한국사람들이 시끄럽고 방세를 안내니까 꺼린다. 하지만 한국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본인이나 필리핀인도 마찬가지다.
E	한국사람보다 일본사람을 더 우대한다. 한국사람에게는 방세를 더 비싸게 받는다. 일자리가 있어서 고도부키에 왔지 한국사람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많이 느낀다. 일을 더 못해도 일본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	나이 많은 일본인보다 젊은 한국인이 일을 더 잘한다. 일이 바쁘면 서로 소개하고 New Comer 끼리의 네트워크가 잘 되어있다. 자신도 허송세월이 많았다.

자료: 1995년 실시한 면담조사.

표 2와 같다. New Comer 한국인들은 일본인에 대해서보다 재일동포나 같은 New Comer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재일동포에 관해서는 공통적으로 비정함,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재일동포 친척이 있는 경우가(D씨, E씨) 없는 경우보다 더욱 그러한 감정이 심하게 나타났다. 한편 일본인에 대해서는 일본인이 한국인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지만 직업에 있어서의 철저함을 본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같은 동료들을 보는 시각도 상당히 비판적이다. 한국인 New Comer에 대한 비판은 생활태도와 관련된 점이 많다. 즉 돈이 있으면 일자리가 있어도 하지 않고 돈이 없어질 때까지 경마, 경륜, 파칭코 등을 하며,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같은 New Comer 끼리의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 일자리를 서로 소개시켜 준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앞절에서 언급하였던 재일동포와 New Comer 한국인과의 관계가 위의 5명의 생활사를 통해서도 그대로 선명히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인근의 재일 한국인 거류민단 요코하마지부(이하 '민단'이라 칭함)의 직원은 재일동포와 New Comer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양자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의 이야기에 의하면 약 20년 전까지는 New Comer가 적었으므로 한국말만해도 재일동포는 친밀감을 가졌고, 공동 숙소를 제공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New Comer는 사기행각과 사고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고, 적은 돈에도 일본인 측으로 넘어가고 싸움들을 하니까 점차 재일동포들은 New Comer를 꺼리고 고용을 회피하게 되었다 한다. New Comer는 단기 체류자들이므로 단기간에 돈을 벌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파칭코 등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 거의 대부분이 돈도 잃고 비자 때문에 숨어 살게 되고 결국 타락하는 사람이 전체의 70%나 된다고 한다. 이 수치는 민단 직원의 개인적인 편견에 의해 과다하게 인식되었을 수도 있으나 상당수의 New Comer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 상기의 매스컴이나 고도부키 일용직 노동자 조합직원의 이야기, 재일동포 주민의 이야기 등에서도 공통된다. 민단 직원은 또한 "재일동포는 지금까지 돈을 벌기 위하여 많은 고생을 했는데 New Comer는 재일동포에 대하여 과다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낭비가 심하고 정신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몇 차례나 재일동포들에게 면담을 요청한 결과 면담할 수 있었던 한 명의 2세 여성의 예를 소개한다. 그녀를 통하여 재일동포 2세의 생활사는 물론, 부모세대인 재일동포 1세의 복잡한 가족관계 및 전후 일본에서의 험난했던 생활까지를 추측할 수가 있다.

F씨(51세)의 집안은 생활보호대상자였다. 본인은 어릴때부터 귀가 나빠서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는 거의 무료였지만, 병원에 다니느라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중학교를 중퇴했다. 어머니는 7살난 자신을 친척집에 맡겨놓고 집을 나갔지만, 17세가 되어 다시 만났다. 어머니는 해방 후, 요코하마에서 막걸리를 팔았다. 당시에 식당은 별로 없는 데다가 노동자의 수는 많았기 때문에 꽤 많은 돈을 모았다. 어머니는 지금 고도부키에서 도야와 식당 세 군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식당에는 저녁의 바쁜 시간대에만 나가고 경영은 대부분 가족과 친척들에게 맡겨두고 있다. 한국의 고모가 고모부와 사별한 후 일본에 와서 식당 일을 도와주고 있고 고모는 번돈을 한국으로 송금하고 있다.

F씨의 남편은 대졸로 고도부키에서 금융업을 하고 있다. 남편은 유학을 하기 위하여 일본에 왔었다. 그 당시 남편은 말이 잘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고, 대신에 자신이 생계를 꾸려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결혼 당시에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방을 빌리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다. 시아버지는 현재 일본인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후쿠시마에서 파칭코점을 경영하고 있다. 남편의 친어머니는 지금 한국에 있다. 이들 부부는 후쿠시마에서 4년반 정도 파칭코점에서 일을 도와준 후 요코하마로 왔다.

이상에서 소개한 예들을 볼 때, New Comer 한국인이 고도부키로 들어온 데에는 어떠한 형태든지 재일동포와 관련이 있다는 점과 고도부키 내의

생활과 취업면에 있어서도 그 관계는 계속되고 있으며, 생활을 계속하는 동안에 쌍방에 대한 의식에 변화가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의식의 변화는 긴 세월동안에 형성된 생활습관 및 정체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도 있으나 이 지역에서는 재일동포와 New Comer, 경영자와 종업원, 친척 혹은 동포에 대한 신뢰심과 의타심 등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인 거주지역의 집주화 과정과 집주지역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요세바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을 선정하여 고찰하였다.

다른 요세바의 형성배경 및 실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요세바는 그 형성과정에서 볼 때 슬럼지역 철거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이주지인 경우도 있으며, 또한 도시내부의 부랑자들을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장소이기도 했었다. 나아가 그 전부터 사형장이라던지 피차별민의 거주지역 등이 존재하던 장소였거나 일반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지역도 있다. 매립지에 세워진 고도부키는 그러한 지역과는 다르나 주위의 반대를 피할 수 있는 고립된 장소이다. 행정당국은 이들 지역에 대한 소외나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들 지역은 자연히 건축현장 등지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모여드는 장소로 변해갔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과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도 경제적·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만 남아있게 됨으로써 요세바 특유의 사회가 형성된 것이다.

현재 고도부키에는 일용직 노동자로서 한국에서 온 New Comer가 증가하고 있어, 좁은 지역 안에서 일본인, 재일동포, New Comer 한국인이 혼주하고 있다. 재일동포가 한국인이 아닌 재일동포로서의 정체성을 자아 확인하는 단계는 여러 면으로 고찰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한정된 지역 내에서 상반된 입장을 가진 구성원이 공존하고 있을 때 재일동포의 정체성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게 된다.

요세바 고도부키 이외의 재일동포 집주지역 중에는 그 주어진 여건이 조금씩은 다르나 고도부키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형성된 곳도 많이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들 지역은 소멸된 곳, 소멸되어 가고 있는 곳도 있으며, 주위의 일본인 주민과의 융합을 도모하며 발전하는 지역들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세바를 중심으로 집주지역 형성의 메카니즘을 해명하고 사회적, 경제적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민족 정체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요세바라는 특수한 집단만을 표본으로 재일동포 사회 전체를 논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요세바와는 다른 형성배경과 실태를 가진 집주지역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재일동포 사회의 현상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 사

본 연구에 많은 조언을 하여 주신 일본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의 栗原 尙子, 熊谷 圭知, 田宮 兵衛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조사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壽生活館관장님과 고도부키의 각 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께 감사드립니다.

註

1) '도야'는 사전상에는 '隱語로서 숙소의 뜻인 야도를 거꾸로 한 말, 간이여관'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新村出 編著, 1976, 廣辭苑, 1620, 岩波書店), 일반적으로 요세바에서만 통용된다.

2) 요세바에는 다수의 봉사활동단체 및 종교단체가 있으며, 이들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News-Letter가 발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가마가사키 크리스트교 協友會에서 발행하는 '協友會通信 23', 산야의 크리스트교 단체에서 발행하는 '山谷', 고도부키의 '壽醫療班通信', 봉사활동 단체인 재일 외국인과 연대하는 모임에서 발행하는 'News-Letter' 등이 그것이다. 또한 壽生活館, 壽福祉센타, 東京

城北福祉 센타등 각 공공 직업소개소의 지역 출장소에서도 업무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각 요세바의 인구를 추정했다.

3) 예를 들면 산야의 경우에는 산의 의미인 '야마', 가마가사키에는 '가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4) 고도부키 내의 주민 및 노동자 그리고 '고도부키 일용직 노동자 조합' 관계자와의 면담에 의하면, 고도부키에는 92채의 도야가 있는데, 그 중 국적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한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91명의 경영자가 한국 혹은 북한국적을 가진 재일동포들이었다.

5) 일반적으로 식민지 시대의 영향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동포 1세와 그 후손들을 Old Comer, 해방이후 일제와는 관계없이 비교적 최근에 건너간 사람을 New Comer라 한다.

6) 고도부키의 경우, 한국에서 온 New Comer 중 여성들의 직업은 대부분 식당의 종업원으로 중년부인들이 많다. 이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 노게(野毛)라는 환락가에는 한국에서 온 젊은 여성이 많다. 이렇게 지역별로 New Comer의 연령 및 성별, 직업에서 차이가 보인다.

7) 1992년 실시한 고도부키 생활관장과의 면담에 의함.

8) 조현미(1998b)는 재일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가와현을 대상으로 재일동포의 집주도(residential location quotient)를 측정하여 가와사키시의 이케가미・사쿠라모토・토대, 요코하마시의 나카구를 집주지역으로 판정하였다.

9) 1997년 2월 실시한 재일동포 2세와의 면담에 의함.

10) 1987년 8월 27일 TBS 방송국에서 방영한 '지구발 22시, 케이힌・아시아 越境地帶'에서는 가와사키시에 거주하는 재일동포들의 생활상을 방영한 바 있다. 이 내용중에서 실제보다도 더 가난하고 비참하게 동포들의 거주지역을 표현한 데다가, 재일동포에 대한 편파적인 시선을 조장하는 장면이 많다하여 방송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국의 동포들로부터 강한 반발이 있었다.

11)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1998년 2월 20일, 일본 정부가 한국・조선어 등의 외국인학교의 졸업생에게 국립대학의 입학자격을 주지 않는 사실에 대해 '불평등한 일이며, 나아가 명확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하고, 그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일본 총리에게 제출한 바 있다.

文 獻

小澤有作編, 1978, 近代民衆の記錄, 新人物往來社, 東京.

大沼保昭・徐龍達, 1985, 在日韓國・朝鮮人と人權－日本人と定住外國人との共生を目在して－, 有斐閣, 東京.

奧田道大, 1997, コミュニティとエスニシティ, 勁草書房, 東京.

神奈川と朝鮮の關係史調査委員會, 1994, 神奈川と朝鮮, 神奈川縣涉外部, 神奈川縣.

川添慶一郎, 1993, 壽からみた外國人勞動者, 神奈川在日外國人問題研究所, 神奈川縣.

芹澤勇, 1967, ドヤ街の發生と形成－横浜埋地(西部の町)について－, 横浜市總務局行政部調査室, 横浜市.

田代國次郎, 1966a, "都市の福祉問題－川崎市のドヤ街とスラム街の實態", 福祉問題研究, 2(2), 童心社, 1-31.

田代國次郎, 1966b, "都市の福祉問題－川崎市のドヤ街とスラム街の實態", 福祉問題研究, 2(3), 童心社, 1-39.

田代國次郎, 1966c, "スラムの分類に關する一試論", 福祉問題研究, 2(6), 童心社, 1-37.

鄭大均, 1978, "池上町'朝鮮人部落'の社會關係(上)", 朝鮮研究, 日本朝鮮研究所, 185, 2-13.

鄭大均, 1979, "池上町'朝鮮人部落'の社會關係(下)", 朝鮮研究(日本朝鮮研究所), 186, 48-60.

曺賢美, 1995, "在日韓國人高齡者の就業狀況－東京都大田區の場合－", 經濟地理學年報 41(1), 57-71.

曺賢美, 1996, "寄せ場における韓國人コミュニティ", 三陟大學校研究論文集, 173-191.

曺賢美, 1998a, 在日韓國・朝鮮人の集住地域の形成と實態, 1998年度お茶の水女子大學博士學位論文.

曺賢美, 1998b, "在日韓國・朝鮮人の集住化過程と現象", 일본어문학회, 6, 521-539.

千葉立也, 1987, "在日韓國・朝鮮人の居住分布", 古賀正則編, 第3世界をめぐるセグリゲーションの緒問題, 一橋大學, 45-84.

戸塚秀夫, 1974, "日本における外國人勞動者問題について", 社會科學研究,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紀要, 25(5), 117-159.

成田孝三, 1995, "世界都市におけるエスニック・マイノリティへの視點－東京・大阪の「在日」をめぐって－", 經濟地理學年報, 41(4), 308-329.

西澤晃彦, 1995, "寄せ場の社會的世界", 都市問題, 6(3), 45-53.

西澤晃彦, 1990, "寄せ場勞動者の社會關係とアイデンティティー東京, 山谷地域を事例として－", 社會學評論, 41(3), 248-260.

朴慶植, 1978, 朝鮮人强制連行の記錄, 未來社, 東京.

丹羽弘一, 1992, "寄せ場釜ケ崎と野宿者", 人文地理, 44(5), 545-564.

本間啓一郎, 1993, "釜ケ崎小史試論", 釜ケ崎資料センター編, 釜ケ崎・歷史と現在, 三一書房, 24-67, 東京.

山本健兒, 1980, "ミュンヘンにおけるガストアルバイター住民の空間的セグリゲーション", 人文地理, 32(3), 214-237.

山本健兒, 1982, "ドイツ連邦共和國における外國人勞動者の地域的分布", 地理學評論, 55(2), 85-112.

横浜市壽生活館, 1995, 壽生活館事業報告書, 横浜市.